

‘천년 차(茶)의 유혹’...보성다향대축제 준비 만전

내달 3일-7일 한국차문화공원 일원서 개최 서편제소리축제 등 9종 보성 대표 축제 통합

전국 최대 차 주산지인 보성군이 가족과 함께 차의 은은한 맛과 멋을 음미할 수 있는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7일 보성군에 따르면 오는 5월3일부터 7일까지 한국차문화공원 일원에서 '천년 차(茶)의 유혹 보성의 프리포즈'라는 주제로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축제는 2024년-2025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정된 문화관광축제로써 보성차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보성의 역사·문화를 알리고, 보성의 아름다운 차 밭에서 차를 통한 힐링과 휴식을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다.

축제 개막식은 제47회 보성군민의 날과 함께 보성공설운동장 주무대에서 지난 1월자메도시를 맺은 하동군과 다원결의(茶園結義) 설정곡(피포즈)을 진행한다.

군은 보성 녹차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 한국차문화공원 일원에서 보성군과 하동군, 중국·일본 등 차를 전시한 차 문화관을 운영해 아시아 대표 차를 맛볼 수 있다. 특히 전통 다례시연, 말차 격렬 체험, 차 로스팅 체험, 차 음식 시식회, 대한황실(家) 다구전 등 프로그램을 마련해 국내 최고 차 문화 축제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 콘텐츠는 ▲애프터는 티(Tea) 파티 ▲보성에(愛) 물들다(茶) ▲보성 티마스터컵 ▲서울 속의 보성다향대축제 주간 ▲보성 속의 서울 차(茶) 체험 ▲보성차 만들기 ▲찾아따기 등이다. 애프터는 티(Tea) 파티는 다양한 방식으로 만든 보성차와 디저트를 함께 맛보고 보성에서 준비한 공연과 이벤트를 대규모 인원이 함께하는 찾자리 이벤트로 꾸며질 예정이다.



보성군이 오는 5월3일부터 7일까지 한국차문화공원 일원에서 '천년 차(茶)의 유혹 보성의 프리포즈'라는 주제로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를 개최한다. 사진은 한국차박물관 다례체험(왼쪽)과 보성다향대축제에서 차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모습.



보성군이 오는 5월3일부터 7일까지 한국차문화공원 일원에서 '천년 차(茶)의 유혹 보성의 프리포즈'라는 주제로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를 개최한다. 사진은 한국차박물관 다례체험(왼쪽)과 보성다향대축제에서 차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모습.

보성티마스터컵은 보성차(茶)를 기반으로 한 식음료의 비주얼, 맛과 향, 창의성, 시장성, 활용성 등을 평가하고 최고의 식음료를 선정하는 경연대회이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이 밖에도 행사장에서 구입한 차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다구를 빌려 보성의 넓은 자연에서 차를 마음껏 마실 수 있으며, 디자인 그늘막(아트셰이드), 쿠션 소파(빈백) 등을 행사장에 설치해 이색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축제는 9종의 보성 대표 축제가 총출동하는 통합대축제로 개최된다. 보성다향대축제,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전국단위스포츠 행사(마라톤·요트), 일리산 철쭉문화행사, 보성군민의 날·어린이날 행사, 데일리콘서트·드론라이프쇼 등 다채로운 축제를 만날 수 있다.

김철우 군수는 "대한민국 녹차 수도라는 명성에 걸맞게 이번 다향대축제를 통해 천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보성 차(茶)의 맛과 멋을 선보일 예정"이라며 "올해 축제에 많은 응원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곡성군이 광주 동명동 카페거리 일대에서 '똑방마켓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 사진은 곡성 똑방마켓 전경. (곡성군 제공)

곡성 똑방마켓, MZ세대 공략 팝업스토어 운영

오는 18-29일 동명동서 홍보·굿즈 이벤트

곡성군이 광주·전남지역 최초 팝업스토어 똑방마켓으로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곡성군은 7일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광주 동명동 일대에서 똑방마켓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팝업스토어는 짧은 기간 동안 임시로 운영되는 매장이란 의미로 인터넷 웹페이지 상에서 잠깐 떴다가 사라지는 '팝업창'과 비슷하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단기간 운영되는 팝업스토어는 운영이 종료되기 전 체험을 해보고 싶어하는 소비자의 호기심과 방문 욕구를 자극한다.

이점은 SNS에 인증샷 남기기를 좋아하는 MZ세대를 대상으로 홍보 효과가 높기 때문에 최근 기업들에게 선택 아닌 필수가 된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곡성군은 광주·전남지역 최초 팝업스토어인 똑방마켓 로컬브랜드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팝업스토어 행사를 MZ세대가 선호하는 광주 동명동 카페거리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곡성 똑방'으로 소풍가자라는 콘셉트로 이색적이고 희소 가치가 있는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10일간의 SNS 홍보 이벤트와 똑방

굿즈 증정 이벤트를 추진하고 곡성군 온라인 쇼핑몰인 곡성몰과 연계해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준비 중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똑방마켓 팝업스토어를 통해 젊은 MZ세대의 생활 인구 유입과 광주·전남권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똑방마켓 팝업스토어는 행정안전부 주관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드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며 지역 고유자원과 특색을 활용, 생활권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주민이 살 만하고, 관광객은 울 만하게 지역 고유성을 살리는 사업이다. /곡성=김영필 기자

고흥군,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첫 대상지 선정

도비 150억 투입... 최장 10년 거주·월1만원 아파트 공급

고흥군이 전남도가 처음 시행하는 '2024년 전남형 만원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7일 고흥군에 따르면 전남형 만원주택은 월 임대료 1만원 수준의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남도에서 올해 처음 시행한다.

군은 우주항공·드론·스마트팜 등 미래 청년 일자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양질의 주거 공급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최적 부지 확보 ▲사전 행정 절차 조기 이행 등 전남형 만원주택 유치를 위해 꼼꼼하게 준비해 왔다.

그 결과 ▲실속 있는 사업계획 수립 ▲서면 평가 ▲현장 확인 평가 ▲전남도 심의 등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조성 비용은 150억원으로 군비 부담 없이 전액 도비로 추진될 예정이며, 향후 운영 및 관리 또한 전액 도비로 전남개발공사에서 전담하게 된다.

사업 대상지는 고흥읍 성촌리 일원으로 고흥군청, 등기소 등 행정기관을 비롯한 대형마트, 병원, 편의점, 식당, 어린이집 등 생활 편의 시설이 밀집해 청년·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입지이다.

특히 대상부지 인근에 지난해 12월 국토부 공모로 확정된 351억원 규모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140호 및 부대시설이 조성될 계획으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의 규모는 총 50호 아파트 형태이며, 면적은 신혼부부는 84㎡, 청년은 60㎡, 거주기간은 신혼부부는 최장 10년, 청년은 최장 6년이다.

입주 자격은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및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태아를 포함한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로 세무 자격 기준은 전남도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군은 만원주택 TF팀을 4월 중 구성하고 전남도, 전남개발공사 등과 연계해 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부지조사 등 사전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흥=최봉환 기자

담양군, 금성면 고비산 산벚꽃축제 '성료'

떡메치기·딸기 체험 공간 등 호응

담양군은 7일 "제1회 금성면 고비산 산벚꽃축제가 지난 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6일까지 이틀간 담양군 금성면 외주제 일원에서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사진)

축제가 열리는 고비산은 담양군 금성면 봉황리와 무정면 봉안리 경계에 있는 산으로 고비(高飛)는 우뚝 솟아 오름을 의미한다.

고비산(463.2m) 아래로 자연적으로 생성된 산벚꽃나무 군락지가 분포돼 있어 만개 시 외주제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

첫날 축제 개막에는 식전 사물놀이 공연과 팝페라 가수의 공연으로 행사 열기를 높였으며, '자기야'를 부른 가수 박주희를 비롯한 초대 가수 공연과 주민 노래자랑이 이어졌다.

또한 축제 기간 떡메치기 행사, 금성 딸기 판매 체험 공간 등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거리로 인파가 북적였으며 축제 기간에 개최한 금성면 고비산 산벚꽃 전국 사진 촬영대회에도 열려 고비산의 아름다움을 카메라에 담기 위한



담양군 금성면 고비산 산벚꽃축제 현장. (담양군 제공)

전국의 사진작가들이 함께했다. 이병노 군수는 "5년이란 오랜 준비 끝에 제1회 금성면 고비산 산벚꽃축제가 열릴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전국으로 알려 담양을 찾는 축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한 애정을 보였다. /담양=정승균 기자

'K-디즈니 순천' AI 활용 설계 캐릭터 도심 3곳 설치

순천시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캐릭터를 제작해 도심 곳곳에 문화콘텐츠를 입혀 새로운 도시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7일 순천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K-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시는 지방소멸 시대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한국판 K-디즈니를 선택했다.

잘 갖춰진 정원이라는 아날로그 판에 애니메이션을 얹은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을 통해 순천의 미래를 열어 가겠다는 'K-디즈니 순천'을 선포했다.

시는 우선 도심 주요 지점 3개소에 캐릭터를 설치해 'K-디즈니 순천'의 출발을 알렸다. 지난날 28일 국가정원 남



문입구, 그린아일랜드 입구 오천로터리,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를 꿈꾸는 순천의료원로터리에 각각 특색 있는 캐릭터를 설치했다.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의 첫 관문인 국가정원 남문입구에는 여행자의 모험정신을 담은 탐험가 캐릭터를 설치했다.

그린아일랜드 입구 오천로터리에는 활동적이고 경쾌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캐릭터로 시민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객에게는 그린아일랜드와 국가정원으로 자연스러운 방문을 유도했다.

또한 의료원로터리에 설치한 캐릭터는 애니메이션 제작 기지를 이끌어가는 미래 인재를 형상화한 것으로 원도심의 창의적인 잠재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상징한다.

순천시가 이번에 설치한 캐릭터는 인공지능(AI)이 디자인한 것을 실제로 제작해 설치한 첫 사례이며, 시는 앞으로도 도심 속에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입혀 'K-디즈니 순천'을 완성할 방침이다. /순천=정기 기자